

평화당, 전북 민심 공략 나섰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촉구 전북희망연구소 현판식도

민주평화당은 20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김중회 도당위원장, 유성업 수석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전 대표, 박주현 수석대변인과 임정업 전북도당 위원장 내정자 등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의 후에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부설 전북 희망연구소(소장 박주현 의원) 현판식을 갖고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북도당 차원의 성공캠프 역할을 수행에 나갈 계획이다.

정동영 대표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의사가 있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산의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미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자기 몫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판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월



민주평화당 제15차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전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전북희망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있다.

말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하고 금융중심지를 즉각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유성업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선거제도이지만 호남 또는 전라북도의 지역구 의석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역구 의석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발전의 청신호 한가지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 청신호는 전북대학교에 약학대학 신설이 1차

관문을 통과해 최종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북도민과 전북대학교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전북 또는 호남의 지역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평화당이 개혁에 앞장서 왔으나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오늘 전북희망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전북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한 전북발전을 견인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교육의 문제는 백년대계인데 김승화교육감이

추진하는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잘못 선택한 방향으로 충북에서 자사고가 없어 자사고를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는 있는 자사고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아 지역구 축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면적, 중앙과 지방의 격차, 고령화 등을 고려해서 지역구 의석을 정하는 만큼 인구만을 가지고 지역구 의석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22일 열리는 본회의 보고 문건위, 도립미술관 방문 수장고에서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문화건설안전위원장 정호윤 주관)는 20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김찬환, 59)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차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2차 업무능력 검증(공개)로 나누어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송하진 지사에 송부하면 마무리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발빠르게, 문건위 소관기관으로 인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증축 완료한 수장고(미술품 보관장소) 현장활동을 벌였다.

수장고 증축사업은 포화상태에 다른 중요 미술작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증축 추진 계획을 수립(기존면적의 약3배 증축)하여, 2018년 4월 준공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유일한 공공미술관 수장 공간인만큼 중요작품의 관리 및 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원만한 작품수집을 위해 수장고 증축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5일부터 20일간 활동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0일 의정실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회계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5명)과 도의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표위원으로 최영일 도의원(순창), 간사에 이병연 도의원(전주 11선거구)이 선임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0일간 활동하며 지난해 전북도(6조1,317억원)와 전북도교육청(3조8,299억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검사한다. 최종 결산서는 오는 6월 1차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송성환 의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도민의 시각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대표위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예산의 집행결과, 재정의 운영내용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하노이회담, 美 큰 제안에 北 답할 준비 안 된 채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결렬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이낙연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북미정상 생산적 대화 평가 협상 여지 남긴 점 긍정적" 비핵화 개념 차이 지적에 "완전한 비핵화에 北도 동의"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개념을 다르게 본 것이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고 거듭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로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핵화 개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계속 공문서에는 그렇게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5·18은 민주주의 뿌리' 여야 4당,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

여야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진에 나섰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UCC 공모전

제1회 동학농민혁명

공모기간 2019. 3. 4.(월) ~ 2019. 4. 19.(금) / 47일간

공모전 심사 및 결과 발표

- 1차 심사(예선) : 2019. 4. 24.(수) 14:00(예정)
- 2차 심사(본선) : 2019. 5. 1.(수) 14:00(예정)
- 결과 발표 : 2019. 5. 3.(금)
- *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

시상식 2019. 5. 11.(토)

* 제152회 활동천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예정)

공모원서 제출서류(출품원서) 작성 후 정읍시 홈페이지 제출(접수)

☎ 문의 : 정읍시 문화체육과 동학선양팀(063-539-5432)

공모대상 국내거주자로서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능

3인 이상 5인 이하의 팀(청소년부, 대학·일반부 등 2개부로 운영)

- * 학생 또는 개인의 팀별 중복 참여 불허
- * 청소년부 지도를 위해 참여하는 교사는 참가 인원에서 제외

출품 공모작 개수 1팀(3인 이상 5인 이하) 1편으로 제한

- * UCC 음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시작 화면에 '작품제작', 끝 화면에 음원 제목과 출처를 반드시 명시

공모내용 동학농민혁명 주제 UCC 공모전

동학농민혁명을 중심 주제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감동적인 이야기

시상내역 총 상금 21,000천원(시장상, 교육장상 등)

| 구분 | 청소년부 | | 대학·일반부 | |
|------------|------|-------|--------|-------|
| | 입상 | 상금 | 입상 | 상금 |
| 대 상 | 1팀 | 2,000 | 1팀 | 3,000 |
| 최 우 수 | 2팀 | 1,500 | 2팀 | 2,000 |
| 우 수 | 2팀 | 1,000 | 2팀 | 1,500 |
| 장 려 상 | 2팀 | 500 | 2팀 | 500 |
| 지도교시상 (4명) | 500 | | | |

- * 지도교사 시상금은 청소년부의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을 시상한 팀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 (단, 상의 순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이 결정)
- * 시상금은 세금(기타소득 원천징수) 포함 금액

주최·주관 정읍시